강진 사찰음식 체험관 '도반' 개관식 가져

(구)예향 한정식 음식점 건물 활용 수탁자 공개모집

'홍승스님' 최종 선정…사찰음식 문화중심지 발전

강진군은 지난 17일, 오감통 시장 내 사찰음식 체험관, '도반' 개관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해 10월, 민선 8기 6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맛과 음악의 도시' 강진 건설을 위해 (구)예향 한정식 음식점 건물을 활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 후 '홍승스님'을 최종 선정했다.

체험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원을 활용해 지난 12월부터 3개월의 공사를 거쳐 개관식을 갖게 되었다.

개관식에는 강진원 군수, 김보미 강진군의회의장, 권석민 강진경찰서장, 이병삼 강진교육지원청장 등 주요 기관 단체장과 종교인을 포함해,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영향 섭취와 영양 불균형, 육식 위주의 서구식 식생활로 다양한 성인병이 증가하면서, 속이 편한 자연식을 추구하는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저탄소'가 전세계 환경 및 산업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육식을 금기하며 저탄소를 실천하고 식사를 공양(供養)으로 여기는 사찰음식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다.

강진군은 식문화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사찰음식에 대한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사찰음식 요리 레시피 개발, 요리사 양성 등을 통해 강진을 사찰음식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단 한가지의 특별한 킬링 콘텐츠가 있다면, 얼마든지 관광객을 견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강진을 맛과 음악의 도시로 알리는데 '도반'이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찰음식 체험관 '도반' 운영자인 홍승 스님은 "사찰음식의 친근한 이미지와 대중화를 위해 체험 수강생을 수시로 모집하고, 전문적인 사찰 요리 강사를 양성해 사찰문화 중심지 강진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며 "부담 없는 가격부터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니, 많이 들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강진 사찰음식 체험관은 개관행사 후 마지막 준비를 거쳐, 3월 24일(금)부터 정상 운영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올봄 대규모 행사 축제 대비 도로 정비 박차

완도군은 대규모 행사와 축제를 앞두고 많은 관광객 및 선수단 등이 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국도변 환경 정비를 실시한다.

완도에서는 오는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제62회 전남도민체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제31회 전남장애인체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제3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에 군은 5억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관문로인 국도 및 행사장 일원 도로를 대상으로 분야별 정비를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관문 시설 정비(대교 내 안전시설물 및 가로등 교체) ▲국도13호선(차선 도색 및 방초 매트 교체, 녹생토 보강 및 게비온 보수) ▲국도77호선(도로 재포장 및 차선도 색, 안전시설물 교체) ▲군도22호선(마라톤 코스 도로 재포장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이다.

특히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청정 완도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면 청소차, 환경미화원, 도로 보수원 등을 투입해 겨울 제설 작업 등으로 지저분해진 도로를 청소하고, 각종 도로 시설물의 청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 표고버섯 음료 시음회 개최

지역 특산물 표고버섯을 활용한 표고버섯 음료 재개발

장흥군은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표고버섯 음료 재생산을 위한 시음회를 진행했다.

시음회에는 농협장흥군지부, 정남진장흥농협, 버섯산업연구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장흥표고음료는 지자체의 신뢰성 확보와 새롭하면서도 담백한 맛으로 연간 60만캔 이상 판매되는 등 남녀노소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아 왔던 제품이다.

2021년 4월 음료생산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표고음료를 그리는 소비자들의 요구로 인해 지난 2월 정남진장흥농협, 다인음료, 버섯산업연구원과 협의하여 재생산 계획을 수립, 기존 제품의 복원과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이번 시음회는 표고음료 생산에 앞서 제품의 맛과 디자인을 평가받아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써 표고음료 시제품 2종과 캔 디자인 4종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날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향후 5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정남진장흥농협 및 장흥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의 우수 농특산물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개발하여 장흥 특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의 소득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진도군, 스마트 강소농 교육생 모집

3월 31일까지 신청·접수…교육생 30명 선정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의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강소농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시설 원예 공통 교육과정으로 농산물 유통과 온라인 마케팅, 현장 코칭 등 총 60시간 운영된다.

대상은 스마트 농업에 관심이 있거나 도입 예정인 농업인으로 모집인원은 30명이다.

스마트 강소농 교육생 모집은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자원팀(☎540-6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스마트 강소농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농업 경영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농가이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스마트 강소농 교육은 4월부터 농가 개별 현장코칭과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시작으로 8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며 "관심 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10년 이상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후 무상 교체

해남군은 6월까지 오래되고 낡은 건물번호판을 전수 조사해 무상 교체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지난 2011년 건물번호판 도입 당시 최초 부착한 건물번호판 중 장기간 햇빛에 노출돼 탈색이나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이다.

현재 관내에 10년이 경과한 건물번호판은 모두 7,158개이며, 올해는 3,000개를 집중 조사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번호판 교체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조·구급활동 지원이나 우편, 배달 등 도로명주소 이용에 있어 군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훼손된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및 건물번호판 수령을 위해 군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건물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장흥군, 탐진강 정화활동

재난안전과 등 40여명, 쓰레기 수거

장흥군은 지난 16일 코로나 완화 및 봄맞이 탐진강 정화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난안전과 직원과 탐진강 지키미, 청아로타리클럽 회원 등 40여명이 합동으로 탐진강 석대보에서 평화교까지 2.4km 구간에 쓰레기 제거 등 정화활동을 펼쳤다.

수거된 쓰레기는 스티로폼, 각종 음료수 병과 비닐 등 부유물과 생활쓰레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흥군 관계자는"앞으로도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깨끗한 탐진강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정화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